

1992년 26일 (월요일)

조선

日 「정신대」만행 전세계에 폭로

美동부대책협, 대대적 여론 조성 작업키로

자료집 발간·증언정취·추모기념회 궐기대회·기자회견·탄원서명·홍보

미동부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이하 美韓挺協)가 11월중에 4차례에 걸쳐 궐기대회, 추모기념회, 진상증언대회 및 국내외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대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미국과 국제사회에 정신대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한 여론조성 작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美韓挺協은 22일 저녁 플러싱 남강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오는 11월21일(토) 정신대 피해자들이 나서는 진상증언대회를 시작으로 대규모 육내의 활동을 펼쳐기로 했다.

17명의 각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오는 12월초 UN인권위원회가 정신대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일본으로 항발하기 전까지 충분한 여론조성과 미주내 피해자 및 자료를 확보키로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또 한 국방문계획이 없는 UN조사단이 남한을 방문, 현재까지 밝혀진 한국측 2백20명의 피해자들을 인터뷰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미한정협의 간사격으로 활동중인 김영호목사는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해 교포들의 자발적인 헌금을 유도키

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미한정협이 결정한 주요 행사계획.

정신대 자료집 발간

11월11일 예정으로 정신대 관련 시, 강연, 연구논문, 활동보고 등을 1백페이지 규모로 간추려 1차로 1

천5백부를 제작, 교포사회에 홍보한다.

진상증언대회

11월21일(토) 오후8시. 장소는 미정이며 황금주씨등 한국과 북미주지역 정신대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기로 함.

추모기념회

11월22일(일) 오후7시30분. 장소 미정.

궐기대회

11월23일(월) 낮12시 한중, 필리핀등 아시아계 합동으로 UN빌딩에서 일본대사관까지 데모와 평화행진을 벌이기로 함.

기자회견

11월24일(수) 오후3시 교포언론 및 미국과 국제언론을 초청, 정신대협의회 활동을 보고

탄원서명운동

2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UN인권위와 NGO여성회, 일본정부, WCC와 NCC 국제협력부, 미국정부 등에 탄원서를 발송.

교육홍보활동

범교포 및 종교, 인권단체, 미언론등에 자료집과 비디오향을 제공하고 투고, 강연, 방문, 대화등을 통해 홍보

국내외 단체와 협력

한국정신대협의회, 타지역협의회, 아시아인 정대협, 한국정부, UN, NCC 그리고 국제 및 미주내 인권·종교단체들과 회담, 공동성명서를 발표, 합동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 추진.

자금마련

이 모든 활동을 위해 범교포 및 한인단체, 종교기관을 대상으로 3만달러의 모금활동을 벌인다. <장근혁 기자>



◇22일 열린 정신대대책협의회에서 김영호목사(왼쪽)가 각종 홍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